상대 세우지 않을 때 더불어 살 수 있다

☞ 19면에서 계속

도 '아이고 이거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세상에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한 생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벌어서 먹고살랴, 다스리랴, 기르랴, 온통 야단법석인데 말입니다. 그렇듯 마음을 옹색하게 쓰고 화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본래 여여한 마음을 가지고 걸림 없이 여여하게 쓰면서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즉각즉각 대치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가서 공부 안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쳐도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익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욕심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몽땅 다 집어먹을 욕심을 부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몽땅 놔 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몽땅 버리지 않는다면 몽땅 얻을 수가 없어요. 그까짓 거 조그마한 거, 그런 거를 놓지 못해 가지고서는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애당초에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부터 먼저 알아라. 내 모습 을 보고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깨달아 안다면 바로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너한테 줄 수도 있고 네 마음을 나한테 줄 수도 있느니라."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첨단의 공부이면서 첨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는 공부입니다. 일하는 게 그대로 여러분의 공부 재료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재료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영원한 자기의 '자신' 입니다. 그걸 자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란 자기 마음 세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 안한다 할 것도 없이 그 도리를 알아서 그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죽은 세상 산 세상도 다 한자리에 있어요. 천당 지옥도 이 한자리에 있구요.

습관적인 행동의 노예 같아

문 일상 속에서 수행을 추구하는 30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가 습관과 관습,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제 자신의 자유의지는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상적이며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의 노예같이 생각되는 저에게 따뜻한 가르침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는 모습이 만날 거기가 거기고 시시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시하다는 생각 자체도 놓고 지켜본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찰나찰나 바뀌어지면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에 모자랐던 것이 채워졌을 수도 있고, 전자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타락이 돼서 그냥 즐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본래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바뀌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유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움죽거려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업식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화(化)해서 바뀌어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대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다 놔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입력된 것이 나오는 자리에다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에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과거에 모든 인과성 · 업보성 · 유전성 · 영계성 · 세균성이 다섯 가지가 없어지고 팔자운명도 거기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입력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이 의식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차원이 주어져서 바로 배우처럼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원대로 내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이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내가 행하고 익혔던 습들이 오늘날에 한데 부합이 됐고, 지금 살아가는 습이 미래에 가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미래에 그 습을 짊어지고 가기 이전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갈 것은 오늘에 녹이고 과거에 진 것도 바로 오늘에 녹인다 이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붙을 것이 없죠. 현재에 붙을 것이 없는데 어찌 미래에 붙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오늘에 놓지 못하면 미래에 다시 또 짊어지고 나오니 세세생생 항상 그 업보에 끄달리면서, 윤회에 끄달리면서, 유전에 끄달리면서 살아야하는 고된 아픔과 고독함, 외로움, 가난함을 다 겪어야만 하는데 이게 또 한 번만 겪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유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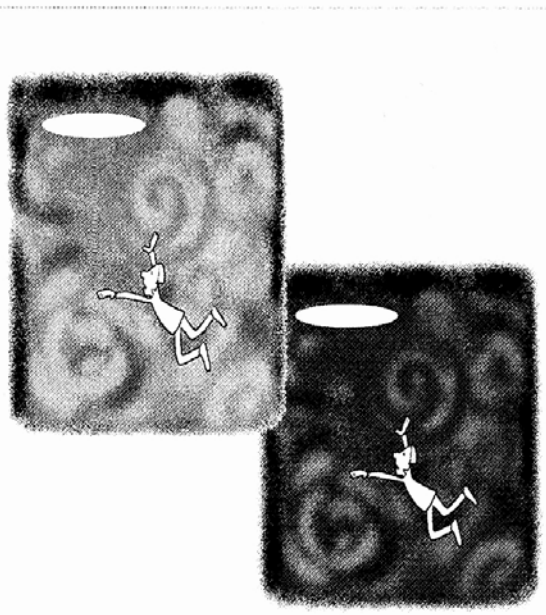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철 인생 안달복달 말고 편하게 맡겨라

과거 습 오늘 놓으면 미래에 붙을 일 없어

되어서 항상 업보로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 생에 몸을 받아서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나왔으면 끄달리지 말고 아예 다 녹여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에 우리가 익히고 새기고 있는 이 공부가 세세생생을 가면서 자기의 인연줄을 다 녹여서 풀어버리고 벗어나게 되는 공부이니 어찌 소홀히 생각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산다는 그 생각도 나온 그 자리에다 놓고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애욕에 숨은 도리가 있습니까

문 제 나름대로 늘 생각해온 문제인데 애욕이 왜 나오고 어떻게 녹여야 되느냐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내면에는 반드시 숨은 도리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석가세존께서도 이르시기를 애욕보다 더 광대한 건 없다고 이르셨구요, 다시 이르시기를 애욕이 이 세상에 하나만 더 있어도 성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경계가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애욕이 들끓는다면 내면에는 반드시 이것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무슨 숨은 도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면 내가 앉아 있는 겁니까?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겁니까?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애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혹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어난 꽃들의 움죽거림에 연관을 시키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함이 없이 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발자취도 짊어진 게 없고 또 몸 속에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독단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알고 본다면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심부름을 해서 더불어 같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서 더불어 한 거지 왜 자기 혼자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나갈 때 안 나갈 때 다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하여튼 지구가 한 도량이고, 우리가 지구의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근본을 보고 마음의 지혜를 내야지 소소한 거, 예를 들어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보고 손가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다 자동 컴퓨터가 있고 자동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것뿐입니다. 마음으로 쓰는 건, 모두 직결이 돼 있고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수레바퀴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 더불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즉시 빛보다 더 빨리 전달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묘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지만 물이라 하면, 물하고도 통하니까 얼른 그게 바뀌지죠. 물체로는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깐 모든 걸 거기다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깐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깐 건건이 걸리게 되고, 걸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 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경계도 다 나온 자리에 맡겨놓고 지혜롭게 사시라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는게 '관' 인지요

문 육조 스님에 따르면 선정을 통한 해탈을 배격하고 자신의 자성을 보는 견성법을 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하는 것에서 바라보는 자와 바라봐지는 대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한 걸로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하는 자와 대상이 둘이 아닌 고로 둘로 보는 분별하지 않고 관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조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좌선을 통한 깊은 삼매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심이 무심이 되고 무심마저 없는 것을 겪고 깨우침을 얻게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답 둘로 보지 않고 관한다고 했죠? 둘로 보지 않는 게 관하는 겁니다. 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딱 맡겨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게 바로 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 가지 연구를 한다, 또는 병고가 났다, 동물이 죽게 됐다 이런 것도 실험하려면, 이거를 한번 한생각 내서 딱 넣어놓고선 지켜볼 때에 그게 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둥글게 해서는 전체 거기다 맡겨 놓고,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할 게 있으면 거기다가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렇게 해야하지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해 달라고 한다면 노예가 돼 버립니다. 자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점, 자유스럽다는 점을 항상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부처님께서 바로 자유인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내 마음이 과거의 마음과 동일해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싹을 틔워야 하는 거죠. 싹을 틔우기 위해서 생사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게 둘이 아닌 찰나생활이 그냥 공했으니까,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공한 너의 주인공이 그대로 배우는 한마음이요, 한마음은 내려놓는 게 한마음이요. 어떤 걸 이름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공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면 촉촉하게 물도 줘야 하고 흙도 골라줘야 거기서 싹이 틔지 않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씨가 어떻게 싹을 틔웁니까.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과정 없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받아 가지고선 글쎄, 자기가 지금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알고 그러면서도 지식과 학식이 충분히 들어갔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게 뭣고' 하고 10년을 있어봐도 그것은 싹이 트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려면 물을 주고 흙을 골라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트면 인제 그때부터 기르는 거죠. 과정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언어마저도 거기다 넣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도 거기 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떠한 물건이든지 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냥 그 작업만 하면 돼요. 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작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이 돼서 나가니까요. 그러고 또 그 뒤의 걱정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쇠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할 테니까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